

국악·재즈로 되살아난 100년의 기억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에서 오는 23일과 8월 20일 ‘흥학관 재즈 오라토리오’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을 기획한 최수희 작곡가(왼쪽)와 흥학관에서 열린 지난 공연 모습. <흥학관 제공>



“일천구백이십일년, 꽃이 만개한 사월 여기 이터에 큰 잔치가 열렸으니, 우리 젊은이들이 몸과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해 하나 둘 모이네.”

광주 동구 광산동 한 길모퉁이. 잊힌 듯 잠들어 있던 그 자리에 다시 불이 켜졌다. 1920년대 청년들의 배움터이자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던 흥학관이 1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의 무대로 되살아난다.

복합 문화예술공간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에서 오는 23일과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창작 음악극 ‘재즈오라토리오 흥학관’이 펼쳐진다. 이번 작품은 흥학관이 품어온 시간과 이야기를 국악과 재즈를 통해 풀어낸 창작 초연작이다.

공연의 기획과 작곡은 최수희 작곡가가 맡았다. 최 작곡가는 뉴욕 쿨리지에서 석사, 파이프타운스 칼리지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재즈음악을 중심으로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광주에서 자란 예술가로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예술 콘텐츠로 풀어내고 싶었다”며 “흥학관은 단지 과거의 건물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광주 정신’의 상징과도 같다. 이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에는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의 관장이자 국내 재즈계를 대표하는 색소폰 연주자 박수용을 비롯해 플루티스트 황태웅, 재즈 피아니스트 강윤숙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오라토리오 형식을 취하고 있다. 총 10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각 곡이 하나의 장면을 이루며 흥학관의 시대적 의미를 서사적으로 전개한다. ‘1921-잔치’, ‘청년-동지를 틀다’, ‘계몽-어

아트스페이스 23일·8월 20일 음악극 ‘재즈오라토리오 흥학관’ 흥학관의 역사성 담아낸 창작 무대 10곡으로 시대적 의미 서사 전개

두움을 열다’, ‘희로애락’ 등 창작곡들은 공간의 태동과 청년들의 각성을 음악으로 형상화한다. 고은 시인의 시 ‘광주는 빛입니다’를 바탕으로 한 창작곡 ‘함께’에서는 “무등산 장불재 불빛 바람재 내려오며 어둠마다 밝히는 불빛”이라는 가사가 지성 이 빛나는 공간이자 광주 정신이 시작된 장소로서의 흥학관을 환기한다.

특히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재즈에 국악적 색채를 덧입힌 점이 흥미롭다. 가야금 병창을 전공한 보컬리스트 심세희, 남도 판소리 제1호 전수 장학생 함승우가 보컬로 참여했다. 색소폰과 플루트는 대금처럼, 피아노는 가야금의 주법처럼 연주돼 새로운 질감을 만든다. ‘임을 위한 행진곡’, ‘상록수’, ‘희망가’ 등 기존의 민중가요는 재즈 편곡을 통해 현재의 감각으로 재해석됐다.

공연은 또 폴 앤 리스폰스와 같은 전통적인 합창적 요소를 재즈적 언어로 재해석해 관객이 함께 노래하고 호흡하도록 유도한다. 즉흥 연주 파트에서는 각 연주자의 독창적 해석과 감정을 드러내 관객이 단발적 감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음

악적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했다. 최 작곡가는 “음악이 단지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관객, 시간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기를 바랐다”며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했다.

공연에 앞서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의 강연도 함께 마련된다. 노 원장은 “흥학관은 1920~1930년대 학생·청년계몽운동의 요람이었으며, 청년 지식인들이 독립을 고민하고 민족의 앞날을 논의했던 공간”이라며 “당시 음악회 등 문화예술이 태동했던 장소에서 이번 공연이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박수용 흥학관장은 “이번 공연은 흥학관이라는 공간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담아낸 창작 무대로, 지역 청년 예술가들과 시민이 예술로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이 음악을 통해 공간의 기억을 함께 경험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흥학관은 1921년 광주 부호 최명구(1860~1924)가 자신의 회갑을 기념해 만 원을 기부하면서 광산동 100번지 일대에 건립됐다. 이곳에서는 방정환, 안재홍, 송진우 등 당대 지식인들이 초청돼 강연을 펼쳤고, 청년 계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광주시청 부속건물과 시의회 건물로 활용되다 1960년대 후반 시청이 계림동으로 이전되면서 철거됐다. 현재 옛 터는 상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목포에서 배우 안석환과 ‘연극교실’

KR갤러리, 8월~10월 운영...연극 통한 자기 표현의 장

목포에서 배우 안석환과 함께 삶을 무대 위로 옮겨 보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KR갤러리에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안석환 배우와 함께하는 시민연극교실’을 운영한다. 2025 목포문화도시 문화다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연극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마주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총 14회로 이론 및 실기 수업과 최종 발표회 등으로 구성됐다. 목포 주민 뿐 아니라 무안·영암·신안 거주자도 참여 가능하다.

연극교실을 이끄는 안석환 배우는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2’, 영화 ‘태양을 쫓아’, ‘26년’ 등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펼쳐온 베테랑 배우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오랜 연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무대에서는 기쁨과 표현하는 즐거움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배우는 “이번 여름, 목포 시민들과 연기라는 매개를 통해 진심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여러



목포 KR갤러리에서 시민연극교실을 운영하는 배우 안석환. <tVN 제공>

분과 함께 독창적이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R갤러리 전대상 부관장 역시 “연극은 자기 표현이자 소통의 예술”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자 자존감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해발 3000m 라다크 하늘 호수로 가자!

위승환 동화작가 장편 ‘하늘호수’ 펴내...두 어린이 모험심 그려

태백산맥 문화관 명예관장을 역임한 위승환 동화작가가 장편동화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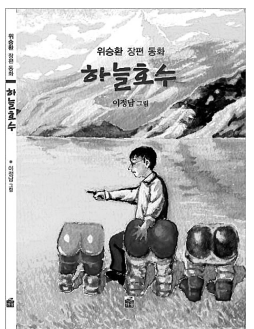
해발 3000m가 넘는 북인도의 라다크 지방으로 여행을 떠난 어린이의 여정을 담은 ‘하늘호수’(가꿈)는 모험심과 상상력을 담은 작품이다.

위 작가는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에 대해 “몇 해 전 여름날 우연히 읽었던 책에서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라다크라는 곳을 알게 됐다.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듬해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 마침내 그곳에 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곳의 풍경은 정말 꿈같았는데 하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새파랗고 공기는 놀랄 정도로 차가웠다”며 “라다크 사람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느꼈던 감동과 단상들이 이번 작품을 쓰는 모티브가 됐다. 갈등하던 두 어린이가 신비한 호수와의 만남을 계기로 서로 이해하고 화해에 이르는 내용이다. 진정한 우정과 성장의 의미도 함께 사유해볼 수 있게 한다.

작품 전면에 묘사돼 있는 거친 바위산과 흰 구름, 낯선 동물 마멋, 라마사원의 동행 소리 등은 또



다른 묘미를 선사한다. 라다크의 하늘 호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장면들이 다.

동화는 아이들이 물론 어른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삶을 긍정하는 지혜, 꿈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소중한 깨달음이다.

정찬주 소설가는 “‘하늘호수’는 장편 여행동화의 모범이 될 만한 작품”이라며 “사랑과 용음, 화해라는 가치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에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의 씨앗을 심어 주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보성 출신 위 작가는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했다. 문예지 ‘인간과문학’ 동화 부문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왔다. 동화집 ‘개구쟁이 술병이’를 비롯해 저서 ‘소설 무대의 관광 상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름방학, 상상과 탐구의 세계로

광주 문화의숲도서관, 29~31일 초교 3~6년 ‘인문 여름 독서 교실’

햇살이 무르익는 여름방학, 책 속 과학자가 되어보는 시간. 초등학생들에게 상상과 탐구의 세계를 열어주는 여름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광주 문화의숲도서관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인문 여름 독서 교실-용선생 과학 탐구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독서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고 실험하며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활용 도서는 어린이 과학 교양서 ‘용선생의 시끌벅적 과학 교실’ 시리즈. 힘의 원리를 배우고 고무 동력기로 실험해보거나, 소금과 색소를 이용해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는 실험, 스마트 렌즈를 활

용한 식물 관찰 등 흥미로운 주제로 각 회차가 꾸려진다.

책을 읽은 뒤에는 만들기 활동과 짝 토론이 이어지며, 과학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도서관 이한주 담당자는 “어린이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질문하고 탐색하는 힘을 기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책과 문화 활동이 결합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참가비 5000원. 선착순 15명.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